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면 나는 묘한 증세를 느껴보고 있다. 몸이 허공으로 붕뜨는 듯 하며 목구멍속 깊이까지 뿌듯하고 뜨거운 감촉이 느껴지며 간지러워진다. 온몸이 나른해지며 마음은 어느덧 고향집의 창가에 가 있다. 귀소본능의 발로인 것이다.

우리가 살던 집은 石綿鑛山의 중턱에 있었다. 석면은 사문암이라는 무늬있는 아름다운 돌사이에 있는 솜같이 부드러운 것인데, 이 석면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광구는 물론 주위가 매우 깨끗하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돌무더기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광산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한 곳에만 있다.

우리동네의 모양은 석면광산을 뒤로하고 논밭과 과수원과 노송가로수가 있는 평범한 시골마을이다. 약 15리 앞에는 보기 드물게 의젓하고 아름다운 오서산이 우뚝 솟아있다. 마을과 오서산 사이에는 큰 냇가가 있고 마을과 큰 내 사이에는 노송길이 가로질러 있으며 장항선 철길이 들판을 가로지러 달리며 작은 언덕넘어로 광천읍내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집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광천읍까지는 5리가 좀 넘는다.

우리집은 6·25때 광천으로 가서 약 30년을 살았으므로 국민학교 5학년인 12살 때 부터 이 광산과 마을과 광천을 중심으로 한 30리 내외의 지역이 나의 어린시절 고향무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집은 석면광산의 중턱에 있었으므로 높이 앉아서 마을과 들과 오서산을 바라보며 4계절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진하게 느끼며 살 수 있었다.

음력설을 세고 얼음이 푸석푸석해지며 매운바람 대신 으시시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시골에 봄이 온다는 신호다.

그 시절의 봄은 겨울보다 더 쉼게 느껴지는 계절이었다. 솔나무가 지나 짙단을 겨울에 다 때었으므로 떨감이 넉넉치 못하여 방에 들어가도 아랫목 이불속을 빼놓고는 따뜻한 곳이 없었다.

봄을 희망의 계절로 찬양하는 것은 예나 지금

이나 변함이 없겠으나 우리마을 아이들의 봄은 배고픔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에게 봄은 차라리 겨울만 못한 것이었다. 겨울 마을에는 가을 추수의 풍성함으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거니와 혼례식등의 잔치가 이마을 저마을에서 심심치 않게 베풀어졌으므로 아이들은 이웃 마을이라도 잔치소문만 나면 달려가서 잔치국수와 떡을 먹어만 주면 되었다.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쫓아내는 잔치집은 없는 법이므로 아이들에게 참으로 섭섭한 것은 잔치가 없다는 것과 주전부리로 요긴하

나는 우리나라를 통일시킬수 있었다

朴 陞 哲
(高麗大醫大교수·內科)

던 고구마가 바닥이 나고 김치도 시어가며 짠우우, 시래기국이 밥상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배고픈 속사정과는 다르게 마을 논과 밭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새들은 날아오르고 아이들은 산과 들을 헤메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자애들은 나물을 캐고 사내아이들은 쫘뿌리를 캐어 먹는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면서 미류나무에는 물이 오르고 암닭은 알을 품는 계절이 온 것이다. 모내기 철이 되면 아이들은 집에서 일손을 도우라고 가정실습이 주어진다. 농사를 안 짓는 우리집에서는 할일이 없으므로 이 때부

터 나의 친구집 순례가 시작되는 것이다. 광천에서 약 30리 거리에서는 모두 광천으로 학교를 다녔으므로 나의 행동반경은 30리 이다. 친구집 순례에 특히 맛을 들인 이유는 춘궁기에 아무리 없어도 모내기 할 때에는 빛을 내서라도 일꾼들을 잘 먹이기 마련이다. 공부 안하고 따뜻한 초여름의 논두렁근처를 어정 거리며 잘 얻어먹는 재미가 있었던 것이다. 잘하면 닭도 잡고 막걸리도 주는데 우리반에는 아내가 있는 친구가 꽤나 있었으니 아무리 작고 어렵도 나는 남편의



친구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름은 더웁고 짜증이 나는 계절이었다. 대천해수욕장에 한 두번 다녀오고 나면 여름방학이 지루하다. 물을 무섭게만 여겨서 수영을 못 배웠으니 더 견디기 어려웠다. 5일 만에 서는 광천장날에도 전부들 축 늘어져서 장구경 같 재미도 별로 없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햇빛이 따갑기는 해도 무덤지 않고 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축복받은 계절, 가을이 온 것이다.

들판이 누르스름해지면 메뚜기가 살이 찌기 시작하며, 험차게 벼이삭 사이에서 튀어오른다.

날씨 좋고 추석명절이 있으며 음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가을방학인 가정실습이 있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국민학교 운동회. 그것은 진정 시골축제의 꽃이다. 우리는 떼지어 실새없이 떠들고 장난치며 20리고 30리고 걸어서 운동회를 찾아다닌다. 나이든 뒤에야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아름다운 꽃인 줄을 알았다.

시골의 겨울은 참으로 따뜻했다. 아이들은 참새를 잘 잡았다. 삼태기에 나무를 받치고 벼를 뿌려 놓아도 되고 고무줄로 만든 새총으로도 되었다. 그러나 지붕의 참새구멍에 후래쉬를 대고 갑자기 켜다가 끄면 참새가 놀라서 떨어진다. 말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한번도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합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이면 집에서 멍하고 들판과 오서산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면 눈이 오는 결이 이리 저리 바뀌는 것이 보인다. 비단을 짜는 것처럼.

우리집에서 내려다 보면 우리 마을을 빙 돌아 나있는 길의 모양이 꼭 토끼를 닮았다. 이 길이 들판을 가로 지르는 큰내와 양쪽길이 반나는 모양이 영락없이 우리나라 지도를 닮는 것이다. 큰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며 서해안의 굴곡많은 모양이나 남해안의 다도해, 동해안의 토끼꼬리모양까지 틀림이 없다. 기이한 것은 백년이상 묵은 늪늪한 노송이 늘어선 소나무길이 휴전선처럼 비스듬이 반도의 중간허리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저 소나무들을 잘라버리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열몇살짜리 중학생이 그 중에 한그루라도 몰래 톱으로 베었다면 그나마 시골중학교를 졸업도 못했으리라. 나는 통일이 되는 날 마을에 가보고 싶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베어버리려고 했던 노송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통일이 안된 것이 고향의 소나무 탓이 아니기를 빌고 싶다.